

2015. 3. 23 ~ 3. 29 주간

26

전남농업정보

■ 주간 기상전망

■ 농산물 수급 동향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건고추, 대파, 배추, 양배추, 감자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나주배 새로운 도전...품질 'UP' 명성 'UP'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전남농기원 '생산비 절감 경영 모델농장'

7개소에 5억 지원

■ 정책동향

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 공급 제한 실시

■ 해외 농업정보

아르헨티나의 홍수로 대두생산 2.5백만 톤
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음.

❁ 농산물 수급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2015년 상반기 배추를 제외한 엽근채소 겨울작형 출하기 가격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3월 광주·전남 농산물 가격 약보합세 유지

❁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양념채소 : 건고추, 대파

- 건고추 : 건고추 상품 600g당 산지가격은 5,500원 수준의 전월 대비 보합세 전망
- 대 파 : 겨울대파 출하량 많아 대파 상품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1,350~1,450원/kg 전망

▶ 엽근채소 : 배추, 양배추, 감자

- 배 추 : 배추 가격은 월동배추 산지 및 저장 출하량이 작년보다 17% 적어 작년보다 높고 평년보다는 낮은 4,000~5,000 원/10kg 전망
- 양배추 : 양배추 가격은 겨울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

보다 높은 5,500~6,500원/8kg 전망

- 감 자 : 감자가격은 가공업체 수요 증가와 저장고랭지감자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33,000~38,000원/20kg 전망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전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나주배 새로운 도전...품질 'UP' 명성 'UP'
- ▶ 올 1~2월 돼지고기 수입 급증...국산 가격 떨어뜨릴라
- ▶ “할랄식품시장 진출, 광범위한 정보조사 선결과제”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 ▶ 전남농기원 '생산비 절감 경영 모델농장'7개소에 5억 지원
- ▶ 전남농기원, '아열대과수 비파' 종합 연구 본격 추진
- ▶ 참자는 농업기계를 깨워 준비운동 시키자
- ▶ 담양군, 맞춤형 소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정책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 공급 제한 실시
- ▶ 농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
- ▶ 국립종자원, 블루베리 분쟁조정 해결
- ▶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국내농산물 안전성 대폭 향상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아르헨티나의 홍수로 대두생산 2.5백만 톤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
- ▶ 미국, 조류독감 위험하에 곡물수출
- ▶ 미국의 2월 대두가공 물량은 전년대비 3.8% 증가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장중가격이 2주래 최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이익고정 움직임으로 급락
 - 옥수수 선물가격은 수출수요 부진 및 높은 국내재고로 급락
 - 대두 선물가격은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수출확대에 따른 미국산 대두에 대한 수출수요 부진으로 근 5개월래 최저치로 하락

❁ 고소득 농업사례(남도일보, 광주일보)

- ▶ 전남의 청년농업인 장성 친환경 생미나리 이광용씨
- ▶ 새싹삼 보급 위해 전국 누비는 장성 동화면 임선호씨
- ▶ 광어 넣은 비료, 땅 살리기 효자...일등 딸기 생산 '든든'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산림조합)

- ▶ 2015년 임산물 수출촉진사업 신청
 - 신청기한 : 3. 31.(화)한
 - 신청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42-341-1729)
 - 사업내용

- 수출활성화사업 : 국고보조 50~100%(농특) 2,674백만원
-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 이차보전(융자) 2,000백만원
- 지원대상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신용장 수취)이 있는 수출업체(임산물 수출 관련자 또는 단체, 영농조합 및 개인)

▶ 2015년 마을반찬사업 추가 선정

- 신청기한 : 3. 20.(금)한
- 신청기관 : 시군에 사업신청
- 사업량 : 2개소
- 사업비 : 200백만원(도비 40, 시군비 100, 자담 60)
- 지원대상 : 마을부녀회 및 생활개선회 등 여성조직,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반찬제조에 필요한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포장기계 등

▶ 닭·오리 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신청

- 기간/장소 : '15. 3. ~ 12./시·군(축산부서)
- 지원대상 : 260개소(닭·오리 사육농가)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비용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3. 23.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3/23)	전주 (3/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40,800	40,800	41,400	43,600	41,189	↓ 6.4	↓ 0.9
	콩(백태)	35kg	136,000	136,000	140,000	142,000	183,520	↓ 4.2	↓ 25.9
	고구마(밤)	10kg	28,200	28,200	23,600	18,800	24,927	↑ 50.0	↑ 13.1
	감자(수미)	20kg	35,000	35,200	30,280	17,600	25,747	↑ 98.9	↑ 35.9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510	480	428	360	1,146	↑ 41.7	↓ 55.5
	양배추	10kg	6,200	6,000	6,520	3,975	6,094	↑ 56.0	↑ 1.7
	오이(다다기계통)	15kg	39,333	36,667	60,267	46,500	50,683	↓ 15.4	↓ 22.4
	애호박	8kg	22,200	22,600	31,400	27,150	24,970	↓ 18.2	↓ 11.1
	토마토	10kg	31,000	30,200	28,640	34,350	33,779	↓ 9.8	↓ 8.2
	무(월동)	1kg	490	480	514	420	-	↑ 16.7	-
	당근	20kg	21,000	20,800	19,400	20,150	25,890	↑ 4.2	↓ 18.9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50,000	814,000	↑ 26.2	↑ 0.7
	풋고추	10kg	76,800	65,200	118,120	60,250	62,137	↑ 27.5	↑ 23.6
	마늘(난지)	10kg	35,200	35,200	34,600	27,400	36,158	↑ 28.5	↓ 2.6
	양파	1kg	640	670	582	634	833	↑ 0.9	↓ 23.2
	대파	1kg	1,510	1,450	1,580	1,163	1,739	↑ 29.8	↓ 13.2
	파프리카	5kg	28,000	28,400	30,000	27,600	31,450	↑ 1.4	↓ 11.0
	방울토마토	5kg	20,000	16,600	15,960	31,050	26,104	↓ 35.6	↓ 23.4
	딸기	1kg	9,200	8,200	12,240	9,300	8,587	↓ 1.1	↑ 7.1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2,400	62,400	62,680	83,800	77,373	↓ 25.5	↓ 19.4
	배(신고)	15kg	39,800	39,800	36,240	44,400	46,057	↓ 10.4	↓ 13.6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3/23)	전주 (3/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8,000	528,000	528,000	534,000	569,000	↓ 1.1	↓ 7.2
	들깨	45kg	426,000	426,000	430,000	450,000	374,600	↓ 5.3	↑ 13.7
	새송이버섯	2kg	8,800	8,600	10,520	8,500	-	↑ 3.5	-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453	6,614	6,659	6,292	6,188	↑ 2.6	↑ 4.3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63	1,936	1,903	1,929	1,625	↓ 3.4	↑ 14.6
	닭고기	1kg	5,542	5,511	5,251	6,365	6,110	↓ 12.9	↓ 9.3
	계란(특란)	10개	1,977	1,962	1,972	2,004	1,804	↓ 1.3	↑ 9.6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2	2,257	↑ 0.2	↑ 12.9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3. 23.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856 천원	4,702 천원	4,101 천원	↑ 1.1	↑ 18.4
	거세	5,296 "	5,375 "	5,186 "	↓ 1.5	↑ 2.1
송아지 (6~7월)	암	2,039 "	1,988 "	1,357 "	↑ 2.6	↑ 50.3
	수	2,382 "	2,480 "	2,205 "	↓ 4.0	↑ 8.0
육우(600Kg)		3,637 "	3,736 "	2,639 "	↓ 2.6	↑ 37.8
젖소수송아지(7일령)		50 "	50 "	16 "	-	↑ 212.5
돼지(110kg)		387 "	363 "	379 "	↑ 6.6	↑ 2.1
육계(원/kg)		1,852 원	1,739 원	1,568 원	↑ 6.5	↑ 18.1
계란(원/특란10개)		1,283 원	1,258 원	1,400 원	↑ 2.0	↓ 8.4
오리(원/kg)		2,500 원	2,500 원	2,500 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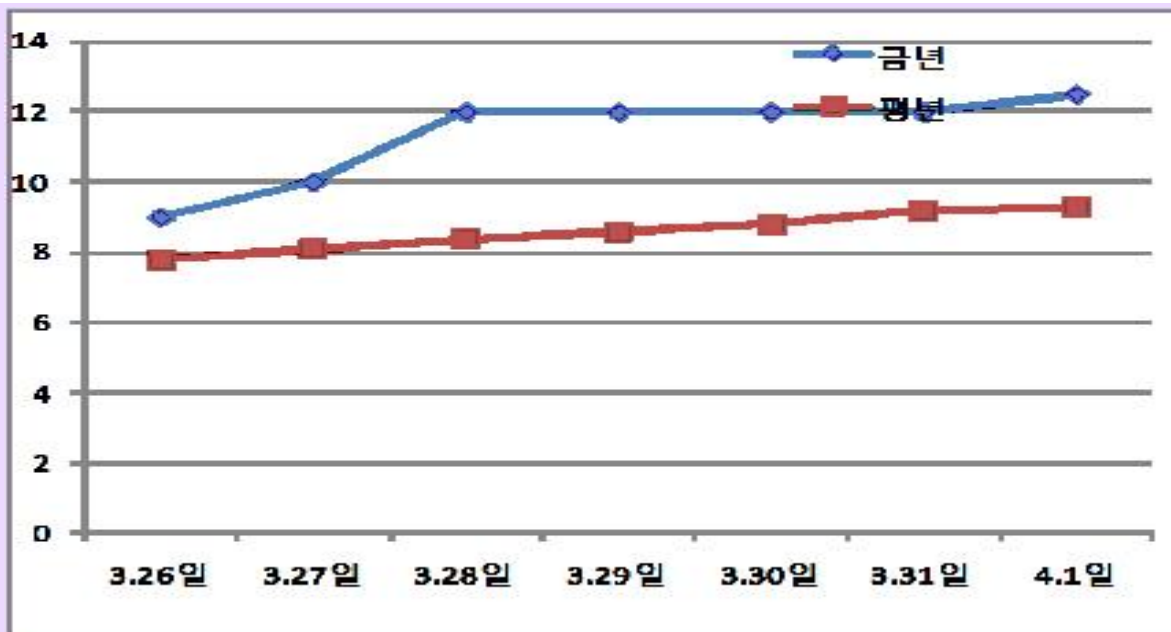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11.4	8.6	2.8	16.3	14.0	2.3	6.4	4.6	1.9	1.5
3. 26(목)	9	7.8	1.2	16	13	3	2	3.9	1.9	1.6
3. 27(금)	10	8.1	1.9	17	13.6	3.4	3	4.1	1.1	1.1
3. 28(토)	12	8.4	3.6	17	14	3	7	4.3	-2.7	1
3. 29(일)	12	8.6	3.4	17	14.1	2.9	7	4.6	2.4	1.1
3. 30(월)	12	8.8	3.2	17	14.3	2.7	7	4.8	2.2	1.6
3. 31(화)	12	9.2	2.8	15	14.7	0.3	9	5.1	3.9	2
4. 01(수)	12.5	9.3	3.2	15	14.5	0.5	10	5.2	4.8	2.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수급 동향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농업전망 2015]

□ 수급 동향

- 2014년 엽근채소 생산량은 2013년 408만 톤보다 4% 증가한 425만 톤으로 추정된다. 배추, 당근, 양배추 생산량은 2013년보다 각각 11%, 5%, 23% 증가하였고, 무는 13% 감소하였다.
- 2014년 엽근채소 재배면적은 2013년 62,541ha보다 4% 감소한 59,872ha로 추정된다. 배추, 무, 당근 재배면적은 2013년보다 각각 3%, 14%, 6% 감소하였고 양배추는 22% 증가하였다.
- 2014년 엽근채소 단수는 전반적으로 기상 여건이 양호하여 2013년보다 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추, 당근 건수는 2013년보다 12~14% 증가하였고 무와 양배추는 1% 내외 증가하였다.

□ 2015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 2015년 상반기 배추를 제외한 엽근채소 겨울작형 출하기 가격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14년산 겨울배추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0%,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출하기(1~4월) 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그러나 2015년 1월 정부는 겨울배추 4만 톤에 대해 시장격리를 실시하면서 향후 가격은 변동가능성이 있다.
- 2014년산 월동무 생산량은 전년보다 7%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4% 많아 출하기(1~5월) 가격은 전년보다 높지만 평년보다는 낮

을 전망이다. 그러나 월동무 주산지인 제주에서 비상품 출하를 자제하고 자체 시장격리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가격은 전망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2014년산 겨울당근과 겨울양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많지만 정부의 시장격리 등으로 2015년 출하기(1~4월) 가격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15년 엽근채소 재배면적은 57,589ha로 2014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와 무 재배면적은 각각 30,078ha, 18,280ha로 2014년보다 4%, 3% 내외 감소하고 양배추와 당근 재배면적은 6,923ha, 2,308ha로 2014년보다 각각 6%, 4% 내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엽근채소 생산량은 2014년보다 9% 감소한 387만 톤으로 전망된다.
- 엽근채소 중장기 수급전망을 고려한 재배면적은 2015년부터 연평균 2% 감소하여 2024년에 49,354h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배추와 무 재배면적은 2015년부터 연평균 2% 내외 감소하여 2024년에 각각 23,688ha, 16,170ha로 추정된다. 2024년 양배추와 당근 재배면적은 7,395ha, 2,101ha로 전망된다.
- 2015년 감자 재배면적은 20,365ha로 2014년보다 3% 감소하고 생산량은 3% 감소한 56만 톤으로 전망된다. 2015년 농산버섯 재배면적은 2014년보다 2% 증가한 655ha이며 생산량은 3% 증가한 17만 톤으로 전망된다.
- 2024년 감자와 농산버섯 재배면적은 2015년 이후 각각 연평균 1%, 0.4% 감소하여 2024년에는 감자 18,579ha, 농산버섯 634ha로 전망된다.

□ 수입 동향 및 전망

- 2014년 주요 엽근채소류 수입량은 58만 톤으로 2013년보다 8% 감소하였다. 배추(김치 포함)와 당근은 2013년보다 각각 3%, 8%, 양배추는 97% 감소하였으며, 이는 엽근채소 국내 생산량 증가 및 가격 약세 때문이다.
- 2015년 주요 엽근채소류 수입량은 2014년보다 8% 증가할 전망이다. 배추는 2014년보다 7%, 당근은 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 FTA 협상에서 주요 엽근채소류는 양허 제외되었으며 김치는 부분 감축 품목으로 정해지면서 현행 관세인 20%에서 0.2%p 감축된 19.8%로 합의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로 인한 중국산 엽근채소의 수입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월 광주·전남 농산물 가격 약보합세 유지

- 3월 중순들어 광주·전남지역 채소류는 개학에 따른 급식용 수요 증가로 일부 품목은 오름세지만, 전반적으로 공급물량 증가와 소비둔화 지속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성장현)가 17일 발행한 광주·전남 농산물 소식지 '얼마요' 1505호에 따르면, 배추와 양파 등의 일부 채소류는 급식용 수요 증가로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기온상승 등 전반적인 생육여건 호전으로 인한 공급물량 증가와 지속되는 소비둔화로 상추와 오이, 풋고추, 딸기 등은 약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일류 중 저장분이 출하되고 있는 사과·배 등은 전문 취급상인들의 출하조절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딸기·방울토마토 등의 가격은 급식용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산지 출하량 증가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aT 관계자는 "기온상승 등 생육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농산물 가격은 소비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부분 품목이 약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출처 : 파이낸셜뉴스('15. 3. 17.)

3.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양념채소 : 건고추, 대파

○ (건고추)

- 건고추 상품 600g당 산지가격은 5,500원 수준의 전월 대비 보합세 전망

○ (대 파)

- 겨울대파 출하량 많아 대파 상품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1,350~1,450원/kg 전망

엽근채소 : 배추, 양배추, 감자

○ (배 추)

- 배추 가격은 월동배추 산지 및 저장 출하량이 작년보다 17% 적어 작년보다 높고 평년보다는 낮은 4,000~5,000원/10kg 전망

○ (양배추)

- 양배추 가격은 겨울양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5,500~6,500원/8kg 전망

○ (감 자)

- 감자 가격은 가공업체 수요 증가와 저장고랭지감자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33,000~38,000원/20kg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나주배 새로운 도전...품질 'UP' 명성 'UP'

- 성장촉진제 배제 신뢰 확보 -
 - 수출전문단지 조성 확대 등 -
 - 나주시 다양한 지원 나서 -
- 국내 최대의 배 생산지인 나주시가 해외 수출시장과 국내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형 고품질 생산·유통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 시는 지역 특화품목인 나주 배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배 육성 계약출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고품질 배 생산·유통 계약출하 지원사업은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배 등 국내산 과일 소비 정세에 따른 가격하락과 수급 불안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 나주시는 올해부터 나주 배 육성정책으로 ▲무(無) 성장촉진제(지베렐린=gibberellin)처리 고품질 나주 배 계약출하 ▲수출단지 확대 육성 ▲수분(受粉)수종 식재 및 품종갱신 육성 ▲공선(공동선별) 출하 조직육성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 시는 나주배 명성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을 무분별한 지베렐린 처리로 보고, 올해 목표를 '무 지베렐린 처리 배생산 원년'으로 정했다.
- 시는 이를 위해 '무 지베렐린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비수기 국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배를 생산해 사계절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나주배 브랜드 위상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 그동안 배 농가는 추석 명절에 맞춰 출하하기 위해서 당도와 저장성이 떨어져도 어쩔 수 없이 지베렐린을 사용해 왔다.
- 시는 공선출하 조직에 소속된 농가와 계약을 맺고 내수용 무 지베렐린 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출하한 배를 전량 매취 및 수탁처리 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계약재배가 실시되면 농가는 판로와 가격에 걱정 없이 재배에만 전념하고 수확해서 공선출하 조직에 출하하면 된다.
- 이에 앞서 지역농협 관계자들도 올해 설 명절전 모임을 갖고 앞으로 지베렐린을 바른 배는 입고 배제하기로 알려져 농가의 참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 이와 함께 시는 품질이 낮은 중국산 꽃가루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산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으로 품질을 향상해 나갈 방침이다.
- 과수원에 수분 수종 식재(국비 50%, 지방비 50%)를 20% 이상 늘려 혼식 식재로 꽃가루 인공수분을 줄일 계획이다.
- 낮은 수준의 공선출하조직은 선별·포장비 등을 지원해 농가의 계약재배로 수탁·매취 비율을 높여 중대형 유통망 다양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나주배 농가의 판매처별 출하비율은 ▲자가선별 직거래 60% ▲공동선별 20% ▲밭떼기와 배즙가공 20%로, 농협을 통한 유통은 낮은 수준이다.
- 시는 농가와 공선출하 조직을 대상으로 봉지 씌우기부터 선별·포장 출하까지 맞춤형 생산과정의 기술지도와 유통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수출분야는 ▲농가의 수출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 ▲농협의 연중 적극적인 바이어 확보 ▲국내 과잉물량 해외격리 미흡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 특히 수출 전문단지의 배는 국제 우수농산물 관리인증(Global GAP)기준에 맞게 생산해 미국 등 해외 수출국별로 상품을 분류하고, 미국(85%), 대만(10%), 기타(호주, 동남아) 5%에 편중돼 있는 수출국 의존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 시는 올해 고품질 배 계약출하 목표를 수출전문단지 200ha를 포함해 300ha(9000t)으로 설정하고, 점차 늘려나가 2017년까지 700ha(2만1000t)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시는 최근 세부사업 추진지침을 확정하고 공선출하 조직을 통해 사업 참여농가와 생산·출하 계약을 이달 말까지 체결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모집하는 ‘무 지베렐린 생산단지’ 계약출하 농가는 내수용으로 100ha(2500t) 규모이다.
- 강인규 나주시장은 “고품질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소비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나주배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 한편 나주는 2443 농가에서 전국 배 생산량의 20%(6만여t)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배 주산지이다.

* 출처 : 광주일보

■ 올 1~2월 돼지고기 수입 급증...국산 가격 떨어뜨릴라

- 1~2월 총 6만7175톤...전년동기대비 63% 늘어 -
 - 2차 가공용 수요 크게 증가...뒷다리까지 들어와 -
 - 국산 가격 높고 수입산은 낮아 비축 더 늘 수도 -
- 1~2월을 합쳐 돼지고기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한 1~2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총 6만7175톤이 수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만1015톤과 비교해 63% 가까이 늘었다. 특히 2차 가공용 수요가 크게 늘어 1~2월 수입된 등심이 총 394톤 가량으로 115%, 앞다리가 2만7935톤으로 80%, 지난해에는 전혀 수입이 없었던 뒷다리도 1451톤이나 수입됐다.
- 여기에 삼겹살 수입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동기 삼겹살 수입량은 2만1476톤인데 반해 올해는 2만6877톤이 수입돼 물량으로 5400여톤이 더 수입됐고, 갈비도 2038톤이 수입되면서 전년대비 107% 늘어났다.
- 이처럼 돼지고기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국내산 가격 상승과 함께 수입돼지고기 가격이 낮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와 소비 감소로 인해 2010년 이후 최악의 돼지고기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 또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함에 따라 러시아가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유럽 돼지가격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은 재고가 많고 중국과 한국도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국제 돼지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 이에 대해 수출입협회 관계자는 “국내 가격도 높았던 데다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원료육을 구입한 경향이 없지 않다”면서 또 “2차 가공업체에서 원료육을 유럽산 전지로 전환하며 비축에 들어갔는데, 유럽 전지가격 추가 하락이 예상돼 비축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그는 또 관련업체 회의 결과 “1월 수입량의 경우 삼겹살과 목심 수입만 감소를 보였고, 전지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내 가공품 원료육의 수입육 전환으로 유럽으로부터의 전지 수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산 목전지도 가격하락으로 수입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육 모든 부위에서 판매는 최악의 상황으로 특히 전지와 목심, 그리고 목전지의 악성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1~2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4만6393톤에 비해 16% 가량 줄어든 3만8942톤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쇠고기는 줄기는 했지만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 관세하락에 맞춰 수입을 하려다보니 통관대기물량이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 출처 : 농민신문

■ “할랄식품시장 진출, 광범위한 정보조사 선결과제”

- 정부가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할랄 식품 시장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가운데 정부의 움직임이 우리 농식품의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할랄 식품 원재료 연구·개발 및 할랄 인증 컨설팅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식품의 할랄 식품 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농업 및 할랄 식품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2일에는 한국식품연구원 내에 ‘할랄식품사업단’을 설치하며 할랄 시장 진출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활용해 UAE·말레이시아 등 국가별 할랄 인증 분석 및 할랄 식품 개발, 할랄 인증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 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두바이 사무소 개소, 케이푸드페어 개최 등을 통해 할랄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우리 농식품 홍보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농식품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식품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 속에서도 실제 할랄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제 할랄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단계인 만큼 아직까지는 할랄 시장 정보, 연구·개발 등 국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 무엇보다 할랄 시장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할랄 인증’ 취득 과정이 어려운데다 중소식품업체가 선부르게 접근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상당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 이에 정부 정책이 농식품 수출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할랄 시장에 대한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정보조사, 할랄 식품 원재료에 대한 연구·개발, 인증 컨설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할랄 식품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노장서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 박사는 “할랄 식품 수출의 근간은 원료·성분 등 원재료의 개발과 제조공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개발 분야인데 정부가 그동안 이 부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측면이 있다”며 “할랄식품사업단 및 익산식품클러스터 내에 조성을 추진 중인 할랄 식품 전용단지를 통해 원재료 개발 및 인

증 관리가 미흡한 중소 식품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전남농기원‘생산비 절감 경영 모델농장’7개소에 5억 지원

- 전남농업기술원은 민선 6기 저비용 고수익 농업기술 창출 공약사항 중 하나인 “생산비 절감 경영 모델농장” 육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농장’ 육성 농가 공모를 통해 올해 무안 현경면에서 제출한 참깨 육묘 기계이식, 기계수확으로 노동력 절감 등 7개소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 5억원을 지원한다.
- 사업 대상자는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생산비를 절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 희망자 23개 경영체 중 기술원 생산비 절감 실무협의회의 1차 심사를 통과한 11개소에 대해 식량작물, 채소, 과수, 경영분야 외부 전문가 그룹 6명이 심사해 선정됐다.
- 심사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체의 실행의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 투입의 적합성, 사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작목 안배와 생산비 절감 후 효과 등을 고려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강진 벼 부분경운 이양단지 조성사업은 강진 무경운 연구회 11명이 참여 작천, 병영, 도암 3개단지에서 벼 부분경운이양, 녹비작물 재배, 농자재 공동구입 등을 통해 벼 생산비를 20%이상 절감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 순천 낙안 120명이 참여한 맥주보리 파종 및 재배관리 생력화 사

업은 맥주보리 채종포 단지 지속적 운영을 위해 맥주보리 파종, 재배관리, 수확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비를 19.5%절감하는 사업이며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 곡성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주) 43농가가 참여한 시설딸기 이산화염소 훈증 시스템, 폐액을 활용한 생산비 절감 사업은 딸기 수확 후 부패에 의한 선도 저하 문제 개선, 공동선별 정작 시스템 활용, 비료물(폐액) 재활용 등 기술을 도입하여 딸기 kg당 생산비를 11.4% 절감하는 사업이며 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 공모심사를 맡은 김희승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실용화사업 심사위원장은 생산비 절감 경영 모델농장 사업에 공모한 농가와 경영체의 열정에 놀라웠으며, “공모를 신청한 대상자 모두에게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 김춘성 농업기술원 농산업연구담당관은 전남 주요작목 생산비 절감목표 11.1% 달성을 위해 금년 최종 선발된 사업 대상자는 농업기술원에서 “경영체의 사업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회를 개최하고, 사업별 담당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활동을 통해 명실상부한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농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으며,
- 내년도에도 쌀보리, 콩, 녹차, 양파, 고추, 토마토, 배, 매실, 단감, 포도, 한우, 오리 등 전남의 주요 농축산물 20작목에 대한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아열대과수 비파' 종합 연구 본격 추진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지역의 새로운 틈새과수로 각광받고 있는 아열대과수 비파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전정과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개발 과제 연구비를 지원받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종합한 고품질 재배기술 매뉴얼을 발간하여 농업인에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 비파는 아열대 상록과수로 낙엽 온대과수와 달리 겨울철에 꽃이 피어 이듬해 6월경에 과일이 익는다.
- 특히 과실에는 베타카로틴과 칼륨 등 무기물이 풍부하며 맛이 새콤달콤한 아열대 과실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 또한 잎에는 코로소린산 등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하여 항비만, 항당뇨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비파잎차, 음료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 비파 전국 재배면적은 약 105ha인데 그 중 전남이 95ha로 전국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해안 지역인 완도, 장흥, 여수, 고흥 등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 비파 연구는 재배역사가 짧아 신품종 육성 등 부분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전정이나 병해충방제 등 재배기술이 종합적으로 확립되지 않아 재배농가가 고품질 과실생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또한 지구 온난화 영향과 기상이변으로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친환경적인 방제법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 이번 연구에서는 비파 재배농가의 애로사항인 전정방법 확립과 시설재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생리 장애 증상인 자반증 발생원인 구명 및 대책 연구, 그리고 우리나라 비파재배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의 발생실태조사 및 친환경 방제법 등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구기술이 개발되면 관련 기술을 종합한 비파 고품질 재배기술 매뉴얼을 책자로 발간하여 농업인에 보급할 계획이며 개발기술이 비파 재배농가의 고품질 과실생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잠자는 농업기계를 깨워 준비운동 시키자

- 전남농기원, 겨울철 장기보관 중인 농업기계 영농철 맞아 점검, 정비해야 -

- 전남농업기술원 (최경주 원장)은 다가오는 영농철을 맞아 원활한 농작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겨울철 장기보관 농기계 점검·정비 요령을 발표했다.
- 농업기계 사용 전 주요 점검 사항과 정비 요령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농업기계 외부에 묻은 흙이나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을 해주고 윤활유가 필요한 곳은 윤활유를 주입하고 볼트, 너트가 풀린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 엔진과 밋션 오일의 양과 유량 게이지를 확인해 부족하면 보충하고 오일 색깔이 검거나 점도가 낮으면 교환한다.
- 연료필터도 청소하거나 교환하고 연료탱크, 연료관, 연결부 등에

균열이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연료탱크 내에 침전물 등 오물이 있으면 깨끗이 씻어내고 연료를 채워둔다.

- 냉각수가 새는 곳은 없는지, 양은 적당한지 점검한다. 냉각수는 보조 물탱크의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으면 정상이다.
- 에어클리너의 경우, 건식은 엘리먼트의 오염 상태를 봐서 청소하거나 교환하고, 습식은 경유나 석유를 이용해 깨끗이 세척한다.
- 배터리 충전과 단자 상태도 꼼꼼히 살펴본다. 충전상태는 배터리 윗면의 점검 창을 통해 확인하고, 단자가 부식됐거나 흰색가루가 묻어 있을 경우 깨끗하게 청소하고 윤활유를 바른다.
- 각종 전기배선과 접속부, 전구, 퓨즈 등도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교환하고, 시동을 걸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3~4분간 난기(공회전) 운전을 한다.
- 박혜량 농업교육과장은 “겨우내 묵혀 놓았던” 농업기계를 그냥 사용했다가는 고장으로 안전사고나 예기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 할 수 있다며 기종별 참고 자료를 잘 숙지하여 “영농철을 대비해 미리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담양군, 맞춤형 소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고품격 출하 경쟁력 강화 관광상품 활성화 기대
- 담양군이 지역 농특산물 상품성 향상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소포장 디자인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 16일 군에 따르면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농특산물을 쉽게

접하고 구매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의 고품격 출하와 제품의 얼굴인 포장재 마케팅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5천500만원(보조 50%, 자부담 50%)을 들여 농식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은 관내 생산 농식품 생산자 및 농업단체 중 자체 포장 디자인 개발이 어려운 업체로 포장 개선이 시급하거나 개선 후 뚜렷한 효과가 기대되는 업체, 연 매출 3억 이하의 소규모 업체, 친환경농산물 가공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 또한 디자인 제작 투명성과 형평성, 제작비용의 원가절감은 물론 포장재 재질과 디자인 고급화를 위해 디자인 전문업체에 한하도록 하고 일반비닐 등 저급포장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 아울러 농산물 포장재에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홍보문구를 삽입하여 박람회 홍보와 더불어 담양 농산물 인지도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등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고윤 친환경농산유통과장은 “소규모 식품업체나 생산자단체가 선택 못 나설 수 없는 맞춤형 소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타지역 농산물과의 품질 차별화와 물류비용 절감, 인지도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친환경농업관 입점 품목은 필히 소포장 디자인 개발 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6. 정책동향

◆ 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 공급 제한 실시

- ‘15.7.1일부터 모든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를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7월 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를 제외하고 면세유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원예 및 축산 농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면세 경유에 대해 금년 7월 1일부터 공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 경유 공급제한은 이미 '1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 '11년 7월 1일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할 경우에도 공급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 경유는 내연기관용)에 명기된 바와 같이 유종 고유의 용도에 적합하게 면세유를 사용하자는 취지와 그 동안 일부에서 면세유 부정유통사례 발생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종이 면세 경유에서 등유로 변경 사용할 경

우 등유가 경유보다 발열량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등유 배정량 확대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 확대 등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편익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공모

- '10-10 Project'의 일환으로, '15년도부터 처음으로 사업시행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고, 농산물 수급 조절에 기여하기 위한 「2015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목적) 이 사업은, 국내 가공식품 원료 중 국산 비율이 31.2%('13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10년 이내 가공식품의 수입산 원료 10%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10-10 Project'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 (규모) 올해 사업목표는 7.5억원(국고기준 3억원) 규모의 식품소재 및 반가공 시설 3개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 (용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이란 완제품에 사용되는 반(半) 가공품과 식품 첨가물 등의 소재 및 중간재를 생산하기 위해 원료 농축수산물을 가공하는 산업으로,

- 농식품부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新(신)식품정책」 발표('14.3월) 시 새롭게 도입 및 용어화한 개념이다.

□ 사업대상자는 농업인 5인이상 참여,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

영실적 1년 이상 등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사업요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 및 식품기업이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반가공품의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조건은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이며, 개소당 최대 10억원(국고기준 4억원) 규모로 시설구축이 가능하다.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희망자는 시·군·구청에서 정한 기한 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시·군·구청은 시·도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농식품부로 사업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청의 식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농 정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농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를 통해서도 공모계획 및 사업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 한편, 농식품부는 국산농산물 수요확대를 통한 '10-10 Project'의 달성을 위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과 함께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원료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 가공식품과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인증제 도입,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등도 추진하고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기점으로 반가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반가공산업 육성과 함께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등 '10-10 Project'를 착실히 추진하여 국산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며, “농업계와 식품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사업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종자원, 블루베리 분쟁조정 해결

- 분쟁조정 제도 도입 이후 첫 분쟁해결 사례 -

-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 이하 종자원)은 3월 12일(목) 블루베리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열어 블루베리 묘목판매업자와 농민 간 발생된 분쟁을 4개월 만에 합의를 성사시켜 해결하였다고 밝혔다.
- '14년도 국립종자원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분쟁조정 신청을 성공리에 해결함으로써 향후 국립종자원의 분쟁조정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 분쟁조정제도는 품종, 발아율, 병해충 감염 등에 대해 농업인과 종자생산·판매업체간 다툼이 있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해결을 위해 도입되었다.
- '13년까지만 해도 국립종자원은 품종, 발아율, 병해충 감염 등에 대해 농업인과 종자생산·판매업체간 다툼이 있어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 병리시험, 포장시험 등을 통해 시험분석 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에 머물렀었으나,
- '14년 2월 종자산업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분쟁의 시험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적정보상 수준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국립종자원이 명실 공히 종자분쟁 해결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블루베리 분쟁은 계약과 다른 품종을 공급받은 A씨가 묘목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당사자 간 보상금액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게 되자 국립종자원의 분쟁조정 협의회에 '14년 11월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 블루베리 묘목업자도 이 품종을 공급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과도한 보상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보상비용 외에 소송비용까지 추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정에 동의하였다.

□ 국립종자원은 분쟁조정제도 도입이후 첫 번째 분쟁조정 신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블루베리 전문가인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5명을 분쟁조정위원으로 선정하고
- 분쟁조정위원의 농가의 블루베리 생육환경 실태조사, 유사 판례와 손해율 사정을 감안한 보상금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였다.

□ 국립종자원이 이번 블루베리 분쟁조정을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 첫째, 과학적인 기법에 따라 피해의 정도와 범위 등을 정밀하게 조사한 후 전문가의 진단과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공정하게 판정하여 주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점,
- 둘째, 변호사가 판례 등을 검색하여 유사사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소송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함에 따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또한, 소송의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나 분쟁조정은 단기간에 해결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모두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조정신청 수수료 1,500원)는 점이다.

※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보통 3년 정도 소요, 비용은 소송금액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최소 5~15백만원 정도 소요

□ 국립종자원은 향후 분쟁조정 제도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기법 등 첨단기술개발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종자분쟁해결 역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 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국내농산물 안전성 대폭 향상

- 생산과 유통을 연계하여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 확보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국내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비율이 1.3%로(2010년 2.2% 대비 40.9%가 감소) 매년 안전성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해 국내농산물을 대상으로 생산단계와 유통·판매단계에서 286 품목 91,211건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 1,209건은 현장에서 폐기, 출하연기 등으로 시중유통을 차단하였다.

- 이중 유통·판매단계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 573건에 대해서는 생산현장 추적조사를 통해 시장출하를 방지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였으며,

- 특히, 농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지역특화 및 주생산지 농산물에 대해 식약처, 각 시·도(시·군·구)와 협업으로 4,027건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46건은 생산현장에서 출하를 차단하였다.

□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국민건강을 고려하고 생산·소비량이 많은 54개 다소비 품목과 부적합비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취약시기에 집중관리하여 전반적인 안전성 수준은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산채류, 엽경채류 등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부적합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잔류농약 조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높은 주요 품목류는 생산단계는 산채류(7.0%), 엽경채류(4.2%)순이며, 유통·판매단계에서도 산채류(3.5%), 엽경채류(2.0%) 순이었다.

- 이들 부적합 품목의 대부분은 안전사용기준 미설정 농약을 사용하였으며 농약의 잔류량은 미미하나 불검출 수준의 엄격한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노지재배 채소류 중심으로 생산단계 농산물 방사능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4년에는 1,707건을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모두 방사능 불검출로 판정되었다.

○ 또한, 폐광산 주변 등 중금속(납, 카드뮴) 오염 우려 지역 농산물 3,726건에 대한 중금속조사를 실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34건은 생산현장에서 모두 수거·폐기 조치하여 부적합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였다.

□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수출국별 수출전 안전기준 맞춤형 안전성분석

및 컨설팅 4,842건을 지원하여 수출국에 부적합한 957건에 대하여 수출보류 조치를 하여, 농가불편을 해소하고 수출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 특히, 유통 중인 국내산 쌀 2,053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의 주식인 쌀은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관원은 올해에도 다소비 품목(54개), 부적합비율이 높은 품목과 폐광산 중금속, 곰팡이독소, 항생제, 재배환경 등 소비자 우려분야 중심으로 89천 건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유통환경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맞추어 지역특화 및 로컬푸드 직거래 농산물, 수출농산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 시도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합동조사 등 협업을 확대하고
 - 주식인 쌀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산쌀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생산 인접지의 RPC, 정미소, 양곡상, 정부양곡도정공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소비자 관심이 많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단체와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 농관원 김대근원장은 FTA 확대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산물 안전을 과학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농약, 식중독균 등 유해물질 다성분 동시분석법 개발 등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 국민 소통확대 및 소비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해외 농업정보

◆ 아르헨티나의 홍수로 대두생산 2.5백만 톤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

아르헨티나 곡창지대 북부지역의 홍수로 2014/15년 아르헨티나 대두생산이 1백만 톤 감소한 2.5백만 톤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콜로라도, 산타페, 산티아고델에스테로의 홍수는 최근 건조한 기후로 완화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사상최대 58백만 톤의 곡물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홍수로 인해 1.7-4.5% 감소하여 55.5백만 톤을 생산할 것이라고 한다. 애널리스트는 “600,000헥타르가 홍수로 인해 소실될 것이며 이는 2.5백만 톤에 해당한다. 소실정도는 평균정도일 것이다.”라고 전했으며 한 기상학자는 500,000헥타르의 대두가 홍수로 인해 소실되었으며 기후개선 전망으로 작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 미국, 조류독감 위험하에 곡물수출

미국산 닭의 최대 수입국인 멕시코와 다른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가금류 지역에서 악성 조류독감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수입제한을 부과했다. 알칸사스에서 바이러스 발견으로 40개 이상의 국가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수입제한은 미국의 가금류 생산자들에게 차질을 미칠 것이며 가격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 미국의 2월 대두가공 물량은 전년대비 3.8% 증가

미국의 대두 가공업자들은 대두박에 대한 수출수요 견조세로 올 2월 전년대비 3.8% 증가한 대두물량을 가공하였다. 전미오일시드정제업협회(NOPA)에 따르면 미국 대두 가공업자들은 2월 한달동안 146.070백만 부셀을 가공했으며 지난해에는 141.612백만 부셀을 가공했다고 한다. 한편 애널리스트들은 로이터 여론조사에 따른 평균추정치에 기반하여 2월 대두 가공물량을 148.537백만 부셀로 전망했었다. 전망치 범위는 143.2백만-160.5백만 부셀이며 중간값은 147백만 부셀이다. 한편 1월 대두가공 물량은 162.675백만 부셀이었다. 대두 가공업자들은 2월 한달동안 3.478백만 톤의 대두박을 생산하였으며 대두박 수출도 총 791,532톤으로 2014년 2월 714,231톤 대비 10.8%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NOPA에 따르면 대두유 재고량도 1월 12.28억 파운드에서 13.22억 파운드로 증가한 반면 전년동월 18.93억 파운드 대비 감소하였다고 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3. 18.(시카고 선물거래소)

미국산 옥수수 및 대두가격, 수출우려로 급락

3차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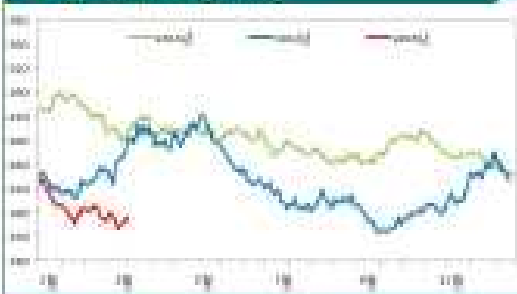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5.3.17)	전일대비	전월평균 (15.2)	2014 평균
밀	184.95	▼2.1%	190	216
옥수수	146.06	▼2.1%	151	164
대두	350.68	▼1.5%	365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립종-39%), 옥수수, 대두의 산물(밀:옥수수:대두=5:5:5)를 장안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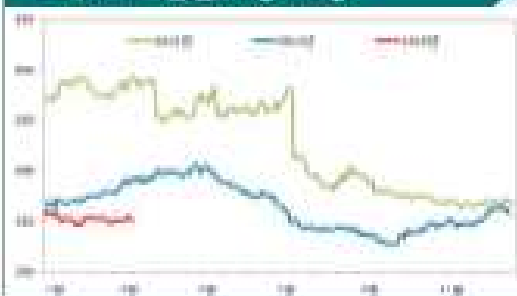


● 밀 선물시장 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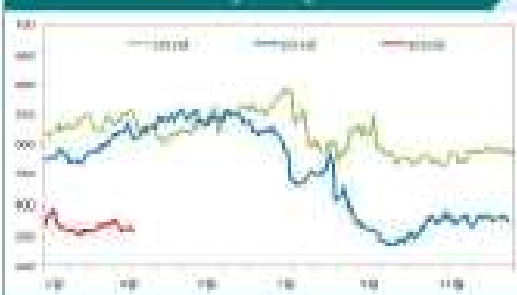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칠황가격이 2주째 최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이익고점 움직임으로 급락했음. 한편 미국 대평야의 건조한 기후에 대한 우려는 밀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또한 높은 국내재고는 USDA 월간보고서의 전망치가 변동되지 않는 이상 밀가격에 지속적인 하락압력을 줄 것으로 보임.

●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수출수요 부진 및 높은 국내재고로 급락했음. 중국은 올해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600,000톤을 구매하였으며, 흑해로부터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할 것으로 보임.

● 대두 선물시장 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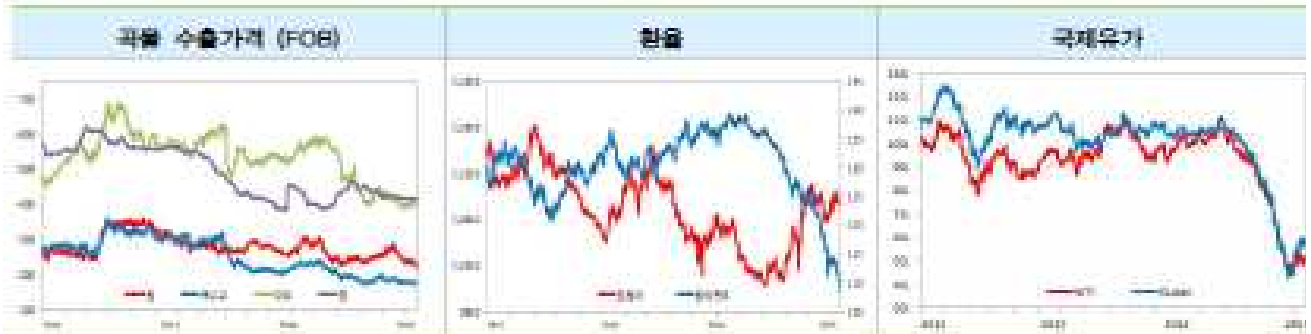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수확확대에 따른 미국산 대두에 대한 수출수요 부진으로 근 5개월래 최저치로 하락했음. 또한 밀과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높은 국내재고 역시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음.

KREI 해외곡물시장

일일동향 Daily World Grain Report <http://agri.kori.ac.kr/>

관심곡물

- 미국산 옥수수 수출가격은 미 달러화 강세 및 다른지역산 옥수수의 높은 경쟁력에 따른 수출수요 감소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두가격 역시 남미의 신작품급에 따른 미국산 대두에 대한 계절적 수출수요 둔화로 하락했음.
- WTI 선물가격은 미 루심지역 원유재고 증가전란, 리비아 원유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음.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전월평균 (15.2)	2014 평균	2013 평균
곡물 수출가격 (FOB)	밀	228	▲0.4%	236	261	284
	옥수수	179	▼0.6%	179	205	265
	대두	388	▼0.5%	401	501	556
	쌀	415	—	417	425	488
환율	원/달러	1,126	▼0.5%	1,098	1,053	1,095
	달러/유로	1,050	▼1.2%	1.14	1.33	1.33
국제유가 (US\$/barrel)	WTI	44.84	▼4.7%	50.85	92.97	97.94
	Dubai	54.96	▼0.8%	56.05	96.64	105.32

주 1) 밀(LB 954W Gulf), 옥수수(0.5 37C Gulf), 대두(LB Gulf), 쌀(Thailand 100% Grade B), WTI(4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3.12(수출가격), '15.3.16(환율), '15.3.13(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 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일일매일 발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해외곡물시장 관련 소식

- 2015/16년 프랑스산 밀은 온화한 기후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확량은 작년 37.5백만 톤과 동일할 것임.
- 2015/16년 영국산 밀의 작황은 전반적으로 이상적인 편임.
- 3월10일 기준 카자흐스탄의 2014/15년 누계 곡물수출은 4.5백만 톤이라고 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8. 고소득 농업사례

■ 전남의 청년농업인 장성 친환경 생미나리 이광용씨

- 지하수로 자란 건강 미나리...벼농사보다 소득 12배 높아 -
- "친환경 생미나리를 잘 키우려면 첫번째로 지하수 물이 좋아야 하고 두번째로 물이 고여 있지 않고 365일 계속 흘러야 하며, 미나리 밭에 1mm정도 황토를 깔아줘야 건강한 미나리가 자랍니다"
- 전남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410-2에 자리한 '장성 황룡강 친환경 생미나리'를 찾았다. 장성 황룡중학교 옆 인근 비가림 하우스안에서 생식용 미나리 세척작업을 하던 이광용(40) 대표가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의 안내로 생식용 미나리 하우스로 들어가기 위해 장화로 갈아 신고 들어간 곳에서는 부인 김명진씨가 생식용 미나리를 한창 손질 중이었다.
- 장성 황룡강 생미나리는 기존의 미나리밭에서 물을 가둬 재배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황룡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밤에는 물을 대고 낮에는 물을 빼내는 논밭절충형 방식으로 재배되고 있다.
- 이 곳의 친환경 생미나리는 밤에 물을 채워 넣는 이유로 일반 하우스는 밤에 영상 2℃정도인데 지하수 수온이 15~18℃ 정도로 미나리를 덮어 얼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또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천혜의 자연 공간에서 자라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나리보다 육질이 연하고 맛과 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하 100m 깊이의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끌어올려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해 데치지 않고 그냥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

- 현재 생식용 미나리는 1kg 박스당 8천원, 4kg 박스당 3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해 장 운동의 활발한 촉진으로 변비를 해결해 주고 중금속의 해독작용, 간 보호, 숙취제거, 방광염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이 대표의 생식용 미나리 단지는 비가림하우스와 노지를 포함한 총 5천619㎡(1천700평)이다.
- 또 장성군 황룡면 생미나리 단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직거래로 80%가 판매되고 있으며, 한마음공동체와 학교 급식 납품에 20% 정도 판매되고 있다.
- 장성 황룡강 청정 미나리 연구회원은 현재 23명이 있으며, 이들은 기존의 미나리밭에서 물을 가뒀 재배하는 방식이 아닌 물을 가뒀다가 빼주는 방식으로 재배한다.
- 이 대표의 장성 황룡강 청정 미나리는 영산강상류의 지류인 황룡강이 북동에서 남서로 형성돼 있으며, 옛날부터 수질이 뛰어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 이는 미나리가 지역에서 4.3ha 규모로 재배돼 왔으나 대부분 외지인의 임차재배의 형태로 이뤄져온데다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가능성이 높아 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 특히 미나리는 벼농사 대체작물로 재배가 쉽고 판로가 안정적이어서 10a당 조수입이 1천200만원으로 벼농사보다 12배가 높아 농업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틈새소득 작물이다.

- 이 대표는 "황룡강 청정미나리에 대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재배단지 육성을 통한 단지화와 함께 작목반 구성으로 공동출하 시스템 등을 갖추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그는 "앞으로 황룡강 청정 미나리를 브랜드화로 상품 이미지를 제고하고, 황룡강 주변을 중심으로 면적을 확대해 지역 특산품화를 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이밖에도 이 대표는 앞으로 친환경 생식, 쌈용은 물론 미나리즙 등 가공까지 계획중이라고 올 한해 계획을 밝혔다.
- 한편, 저온성 작물인 미나리는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이뇨, 이담, 해독작용과 혈액정화, 간 보호, 숙취제거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처 : 남도일보

■ 새싹삼 보급 위해 전국 누비는 장성 동화면 임선호씨

- 하우스 안 화분서 키워 45일만에 출하...연중 재배 -
- 잎 줄기도 식용 가능...기술 이전·판로 개척 분주 -
- “인삼은 뿌리를 먹는 것인데 줄기부터 이파리까지 채소처럼 먹는다고 하니 소비자들은 여전히 낯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삼이 가진 풍부한 영양분 그대로 샐러드와 무침으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새싹삼(蔘)입니다.”
- 장성군 동화면에서 새싹삼을 재배하고 있는 임선호(55)씨. 인삼은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며 4년에서 6년을 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기까지 자신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하우스

안에 플라스틱 화분을 층층이 쌓고 한약재로 만든 배양액으로 삼을 키우는 방법은 기존 재배법에 비해 빠르고 편리하다. 수년을 키워야 하는 인삼과 달리 짧게는 45일, 늦어도 두 달 만에 출하가 가능하다. 가공을 위해 키우는 것도 출하까지 4개월이면 충분하다. 1300m² 재배면적에서 수백 개 화분이 놓여있고 각각에도 수십 개 새싹삼이 자란다. 낮과 밤에도 일정한 온도를 맞춰주면 연중 재배가 가능하다. 크기와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효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영양분을 고루 갖춘 배양액을 직접 개발해 사용한 결과 사포닌 함량도 풍부하다. 이렇게 만든 새싹삼을 10뿌리에 9900원에 판매한다.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매 문의가 늘고 있다.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 뛰어들었다가 고향을 다시 찾은 그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고심했다. 이장을 맡아 농업의 살길을 찾았다. 지난 2002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화분에 키우는 ‘상추아파트’를 도전한 게 시작이었다. 작은 성공을 바탕으로 장성군과 함께 좀 더 고부가가치 작물을 고민한 끝에 인삼을 떠올렸다. 그렇지만 하우스 속 화분에 인삼을 키웠던 사람도, 관련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새싹삼이 자라는데 알맞은 온도와 습도, 햇빛 세기를 찾는데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난 2008년부터 새싹삼을 상품으로 개발하게 됐다. 그는 새싹삼이 인삼과 차별화 되는 점을 강조했다.
- “인삼은 뿌리를 보약처럼 먹지만 새싹삼은 일상에서 채소처럼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인삼 이파리를 차로 우려내 먹었는데 여기에 영양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지만 거칠어 먹기 힘든 이파리. 이것을 부드러운 새싹일 때 먹을 수 있

도록 만든 게 새싹삼입니다.”

- 새싹삼에 도전하는 농민들에게 기술이전을 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느라 한 달에 1만 km씩 차를 탄다는 그는 본인이 농부인지 컨설턴트인지 헷갈린다고 웃으며 말했다. 고된 몸을 이끌고 전국을 누비는 그는 사회가 변한 것처럼 농업도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작황이나 수요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물건이 수입되는지에 따라 우리 농산품 값이 정해지는 세상입니다. 농업이 어렵다고 고민만 하기보다 당장 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게 우리 농가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 광주일보

■ 광어 넣은 비료, 땅 살리기 효자...일등 딸기 생산 ‘든든’

-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비료사업소 개발 ‘장보고’ -
- 적은 양만 써도 효과 충분...딸기 맛·향기 뛰어나 -
- “딸기의 참맛은 땅에 있습니다. 요즘 양액재배 시스템을 통해 고설재배가 유행하는데, 땅에서 키운 딸기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땅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딸기의 고장 담양에서 ‘땅심살리기’를 통해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 이상남(55·담양군 월산면) 씨의 확고한 신념이다.
- 20년 이상 딸기를 재배해온 이상남 씨는 지금까지 토경재배만을 고집한다. 이씨는 “양액재배는 딸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양분을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고설재배법 등을 통해 관리가 쉽다”며 “한 때 가락도매시장 등에서도 양액재배로 키운 딸기가 최고가를 받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소회했다.

- 실제 양액재배의 경우 토경재배보다 크기나 모양이 우수하다. 하지만 딸기 본연의 맛과 향은 토경재배를 따라올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요즘 가락시장에선 토경재배 딸기가 양액재배보다 2kg 한 박스당 2000~3000원을 더 받고 있으며, 백화점 등에선 토경재배 딸기를 최고가로 매입한다.
- 땅심 살리기에 빠져있는 이씨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전남 서부어류양식수협 비료사업소(이하 수협비료)’에서 개발한 ‘장보고’ 비료다. 15kg 한 포당 2만원으로 조금은 비싸지만, 200평 하우스당 7포대정도면 충분하다. 일반 퇴비의 경우 100포 이상(정부 및 지자체 지원 포함 20kg 한포당 2000원 내외)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용면에서도 오히려 절약된다.
- 이씨는 “광어를 이용해 만든 장보고 비료를 비롯해 수협비료에서 만든 제품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시비효과를 거둔다”며 “살포량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는 물론 작업도 훨씬 수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딸기의 경우 11월말부터 5월까지 수확이 이뤄지는데, 토경재배의 경우 3월 이후엔 품질이 급격히 저하된다”며 “하지만 수협비료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3월 이후에도 딸기의 크기는 물론 당도 등 품질면에서 1~2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런 차이는 곧바로 소득으로 이어진다. 실제 3~5월에는 생산량도 많고 난방비 등 투자비용도 적게 들어가지만 품질 저하 등으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다. 2kg 한 박스당 2~3만원을 호가하던

상품도 1만원 이하로 떨어지기 일쑤다.

- 이씨는 “딸기재배에 필요한 일반관리법은 이미 전국적으로 평준화가 이뤄졌다”며 “다만 땅심살리기 등을 통해 상품과 비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소득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 실제 3300㎡(1000평)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이씨는 평균적으로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
- 이와 관련 김영선 수협비료 대표이사는 “수협비료의 제품은 하우스 내에 축적된 염류 해결은 물론 저비용·고효율 상품으로 농가에 고소득을 올려준다”며 “딸기를 비롯해 수도작, 원예작물까지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9. 사업신청 안내

◆ 2015년 임산물 수출촉진사업 신청

- 신청기한 : 3. 31.(화)한
- 신청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42-341-1729)
- 사업내용
 - 수출활성화 사업 : 국고보조 50~100%(농특) 2,674백만원
 - 임산물 판매촉진비(물류비), 수출 포장디자인개발 지원, 수출 기계 장비 지원, 수출안전성 확보사업 등의 사업지원
 - 수출원자재 구매지원사업 : 이차보전(융자) 2,000백만원
 - 수출 목재제품 또는 목재파생품 등의 원자재(수입목재포함) 구입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신용장 수취)이 있는 수출업체(임산물 수출 관련자 또는 단체, 영농조합 및 개인)

◆ 2015년 마을반찬사업 추가 선정

- 신청기한 : 3. 20.(금)한
- 신청기관 : 시군에 사업신청
- 사업량 : 2개소
- 사업비 : 200백만원(도비 40, 시군비 100, 자담 60)
- 지원대상 : 마을부녀회 및 생활개선회 등 여성조직,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 반찬제조에 필요한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포장기계 등

◆ 닭·오리 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신청

- 기 간 : '15. 3. ~ 12.(10개월간)
- 신청장소 : 시·군(축산부서)
- 지원대상 : 260개소(닭·오리 사육농가)
- 사 업 비 : 2,600백만원(국비 780, 도비 234, 시·군비 546, 자부담 1,040)
 - 지원기준 : 개소당 10백만원(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
 - 지원내역 :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비용

주간
26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